

# 2019 부활주일

## 부활 후의 만남은 사랑입니다.

### 1. 만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도 만남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나라와의 만남, 역사와 시대와의 만남 등 모든 것이 만남이다. 만남은 영향력이다.

#### (1) 축복의 만남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성경도 만남의 역사이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만났다. 아담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만남이었고, 그것이 아담의 삶을 복되게 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남의 존재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은 아내를 만난다. 아담을 통해 하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복된 만남이다.

#### (2) 저주의 만남

아담의 멸망은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다. 사탄과의 만남이다. 사탄과의 만남을 거절해야 했는데 거절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가장 저주스러운 만남이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킨 것이다. 별거벗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 잘못된 만남이 모든 사람들안에 저주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만남으로 인한 존재적 고통이다. 후회와 공허함만 남는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후회한다. '사탄과의 만남을 피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남은 신중해야 한다.

#### (3) 회복 그리고 복음과의 만남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은 다른 만남을 준비하셨다. 친히 그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한 것이다. 우리들의 문제와 저주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기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안에 변화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 영혼육의 회복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치유, 사랑,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 2.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의 만남

#### (1)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인된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 떠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내면안에 있는 죄 된 본성을 보게 된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 ㄱ) 이사야

[이사야 6:5]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다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게 된 존재라고 고백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있다)

##### ㄴ) 바울

[디모데후서 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 ㄷ) 니고데모

[요한복음 3:1-2] 1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바울, 니고데모 등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본다. 이 마음이 경외함이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앞에 엎드려진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엎드림'으로 나타난다. 진짜 앞에 있으면 가짜들은 쓰레기가 된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는 자체의 빛이다. 자체로 발광이 된다. 그러나 가짜는 만든 빛이다. 그 빛을 비추어 진짜처럼 보인다. 문제는 자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 (2) 죄인 된 사람의 만남 -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범죄 이후, 아담은 하나님을 만난다. 떳떳하지 못한 만남이다. 왜? 범죄 이후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 좌절, 실패, 후회의 파도가 몰려온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반응이 정상이다. 그래서 영접기도 때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의 진짜 고통은 죄인된 나와 만나는 것이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나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죄 된 본성으로 가득한 나를 볼 때 정말 보기 싫다. 거절하고 싶다. 내가 나를 거절하는 순간이다. 이 때가 바로 정체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순간이다. 보기 싫은 나를 보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다.

### (3) 율법 - 초등교사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21-25]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 - 몽학(어린이의 공부)라고 한다(25절). 가장 기초된 학문이다. 초등교육이 교육의 시작이다. 알게되는 단계이다.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말씀에 보니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하신다(22절). 그래서 사람은 절망한다. 이것이 바로 죄인 아담의 모습이다. 밀려오는 수치심, 정죄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

나뭇잎이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믿는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 자신을 속인다. 나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 '자기 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 (4)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다.

[로마서 13:8, 10]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 된 사람이 떳떳하지 못함은 한 가지이다. 탕감받을 빛이 있기 때문이다. 치루어야 할 죄 값이 있다. (죄책감)

말씀을 보니 율법의 완성은 '사랑' 뿐이라고 되어있다. 율법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찾아 다시 만나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순간 아담 한 사람 이후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다.

### 3. 부활 후의 만남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중요하다. 사람이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모습이셨다. 그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다. 아담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만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온전한 모습의 당신을 보이셨다. 그 순간 그 분이 죽으셨던 모든 이유가 이해되었다. 부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순간 나를 보지않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5:13-15]

13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만남이다. 자격없는 우리가 자격을 입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부활의 실재가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그 분의 손을 붙잡으라. 이로 인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한다. 사랑 그 본체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부활 후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라. 그 믿음만이 진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